

'34층 논란' 속 호남대 쌍촌캠퍼스 아파트 건립 속도

이용섭 시장 '30층 이상 불허' 불구 도시계획위 34층 조건부 수용 행정 절차 마무리...착공·분양 일정·시공사 선정 등 관심

광주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착공·분양 일정이나 시공사 선정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이용섭 광주시장 '시민을 위한 무등산 경관 확보' 등을 위해 '아파트 30층 이상 건축 불허' 입장을 밝혔음에도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34층 조건부 수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종 수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주택건설 사업 개발행위를 조건부 수용했다. 입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 재난 영향 컨설팅과 동쪽 도로 보도의 단지 내 이동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사 공정별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용적률은 유지하되, 업체측이 제안한 최대 34층 건축계획을 최대 30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는 권장했다. 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상수도, 도로 등 부서 간 협의만 남기고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2015년 3월 광산 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6년간 유휴 부지로 남은 만큼 앞으로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건립 규모는 각종 심의를 거치는 동안 16개 동, 969가구에서 14개 동, 936가구로 줄었다. 동별 층수는 10~34층으로 다양하며 평균 18층 높다.

84㎡ 478가구, 111㎡ 288가구, 146㎡ 82가구, 183㎡ 72가구, 160㎡ 77가구, 210㎡ 4가구, 226㎡ 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호남대학교 법인 성인학원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해 건설사들과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는 광주 중심지인 상무지구와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하철 역세권은 물론 광천동 버스터미널 등과 인접해 있는 등 입지가 좋아 대기업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 측도 2015년 3월 광산 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6년간 유휴 부지로 남은 만큼 앞으로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호남대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대부분 끝났으니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해 시공사나 분양 방식 등이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시행된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첫 적용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민간이 세운 개발 계획을 공공과 민간이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다.

성인학원은 학교 부지 해제 등으로 생기는 부동산 수익 등을 고려해 242억원을 공공 기여해 근린공원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30층 이상 아파트 불허를 지시한 이후 제도화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도 30층 이하로 권장이 된 만큼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30층 불허 문제는 수요 공급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환경을 개선해 보자는 측면이고, 가급적이면 무등산 경관을 광주 도심 이곳 저곳에서 많은 시민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어촌민박시설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남도내 농어촌민박시설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로 분류된 19개 업종이었지만 지난 강릉펜션 가스사고, 동해펜션 폭발사고 등 관련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899개 농어촌민박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 기준 약 2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은 유예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9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청 서재필실에서 글로벌 해상풍력·바이오 3개 기업, 사군과 11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용 (주)윈드에너지 대표, 이준행 (주)박셀바이오 대표, 이휘령 (주)세아제강 대표, 김 지사, 구충곤 화순군수, 정찬균 나주시장, 허석 순천시장.

전남도, 해상풍력·바이오 기업 1150억 투자 유치

세아제강·박셀바이오·윈드에너지와 협약 체결

전남도는 29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업체인 세아제강·윈드에너지·박셀바이오 등 3개 기업과 115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아제강은 울진산단 순천공장에 800억원 규모의 증설작업을 거쳐 둘레 8m, 길이 100m에 이르는 원통형 강관 하부구조물(Monopile) 생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세아제강의 투자 결정은 지난 2월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 참여 기업 9곳 중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이다. 현재 세아제강은 순천공장에서 제작한 철탑형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프랑스와 대만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해상풍력 하부구조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윈드에너지는 나주 신도산단 3000㎡ 부지에 50억원을 투입해 소형 수직 풍력 발전기 제조 공장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기로 했다. 공장 지붕 등에서 설치가 가능한 제품 양산으로 '생활 속 풍력발전' 전남 브랜드 구축에 나선다.

윈드에너지는 한전 자력으로 개발한 풍력발전기 원천기술에 지역 연구기관의 핀셋(특화기술) 지원을 통해 창업, 산·학·연 협력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박셀바이오는 300억원을 투입해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1만 3000㎡에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연

구개발 및 생산 설비 단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선포식에서 전남은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는 8.2GW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경제도약을 이끌어달라는 책무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며 "협약 기업도 이런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1등 기업의 목표를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도는 기업 보조금 최대 1000억원, 기반·편의시설 지원 등 전국 최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지난해부터 마련하고, 올해 초 투자기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전남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채소 수급안정 등 원예산업 965억 지원

아열대 작물 육성 등 28개 사업 추진

전남도는 올해 원예산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179억원이 늘어난 9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9일 "올해 도내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 ▲채소류 수급대책 마련 ▲아열대 과수 등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주요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2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시설원예 분야에 12개 사업 256억원을 지원해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구축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주요 노지채소의 가격 급등락 최소화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의 경우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228억원에 도 차원의 수급안정사업비 100억원을 더한 328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올해 '전남형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 실정에

맞는 근본 수급대책을 마련한다.

2021년 정부 공모사업인 채소류 출하조절센터 유치를 추진해 도내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과수·특작 분야의 경우 과수산업 활성화 및 아열대 작물 등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14개 사업 381억원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은 물론 인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중소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단계별 수출전문단지도 육성한다. 농산물전문단지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를 예비단지로 지정·관리하고, 기존 농산물전문단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딸기 등 수출 전략품목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다지고, 향후 규모화·집단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 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제2호 안전 마을·학교·기업 선정...1천만원씩 지원

동명동·서진여고·동양정공

광주 두 번째 안전 마을·학교·기업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동명동, 서진여고, 동양정공 등 3곳에 각각 안전 마을·학교·기업 인증서를 전달하고 안전시설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이후 두 번째 선정으로 광주시는 공모에 참여한 23곳 중 3곳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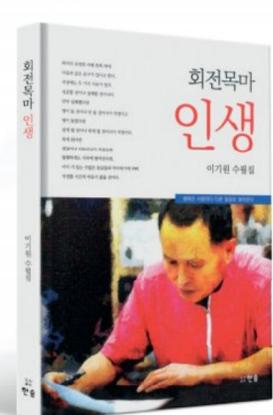
동구 동명동은 주민협의체, 안전지킴이 실천단 등을 통해 주민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 안전시설 설치에도 앞장섰다. 서진여고는 학교폭

력 예방을 위한 타인 배려와 생명 존중 교육에 힘쓰고 전국 최초 교실형 안전 체험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동양정공은 지속적인 공정 개선으로 끼임, 떨어짐, 부딪힘 등 제조업 3대 재해 예방 대응 훈련을 비롯한 재해예방 활동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교통안전 시설물 전문 업체인 세연이 엔스에 안전 도시 조성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세연이엔스는 앞으로 선정된 안전 마을과 학교에 2000만원 상당 안전 시설물, 컨설팅,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 되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 된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이든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